

단일 병원 종사자들의 홍역 항체 양성률에 관한 연구

국립경찰병원 내과

이여송, 이상현, 이준석, 조재현

목적: 홍역은 주로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약 90%가 홍역에 걸릴 수 있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감염될 경우 기침, 발진, 고열 등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 폐렴이나 뇌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유럽의 국가 등에서 산발적인 홍역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해외 유입에 의한 국내 홍역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는 홍역 환자의 방문 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홍역 환자에 노출될 경우 홍역에 감염될 위험 및 고위험 환자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 종사자는 홍역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찰병원 직원들의 홍역 항체 양성률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9년 5월에 경찰병원 직원 561명 전체를 대상으로 홍역 바이러스 항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항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χ^2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령($p=.015$), 근무기간($p=.017$)에 따른 홍역 항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론: 경찰병원 직원들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근무 기간이 길수록 홍역 항체 양성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경우는 많았지만 그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과거 불현성 감염 유무 및 예방 접종력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1. Factors Affecting Measles Seropositivity of Hospital Employees

Variables	Seropositivity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Chi-Square Test
	OR(95% CI)	p	p
Age	1.11(1.021-1.208)	.015	
Years of Employment	6.146(1.390-27.182)	.017	
Department			2.095 .553